

# 不意의 災難을 豫防하자

理事長 李 大 鎔



高度産業化時代의 原動力은 防災業務가 그 基幹이 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듯 싶습니다.

物質文明의 發達과 文化生活의 科學化에 比例하여 火災發生의 危險은 더욱 多岐化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火災, 해마다 늘어가는 人命被害 및 財産損失, 이 不美스런 數値는 文化人이라 자랑하는 우리들의 羞恥이기도 합니다.

그 理由는 經濟的 理論에서 말하는 富(+)<sup>의</sup> 成長이 아니라 負(-)<sup>의</sup> 成長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人間들이 日常生活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항상 天災와 震災, 水災와 火災 등 크고 작은 災難을 겪게 됩니다.

이 災難 가운데 火災로 인한 被害는 우리들의 不注意와 無關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中國의 聖人 孟子는 말하기를 「하늘이 내리는 災難은 避하고, 스스로 招來하는 災難은 避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現代에 이르러 우리들의 生活樣式은 熱에너지에서 電氣에너지로 變轉되고 人類가 必要로 하는 總에너지의 40%以上이 電氣에너지라는 點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더욱 電氣에너지의 使用度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火災로 인한 貴重한 人命과 애써모은 財産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는 데, 1970년도 부터 1979년 까지 10年間의 火災原因別 統計를 보면 1972년 까지는 油類로 인한 火災가 首位를 차지하였으나 1973년 부터는 電氣로 인한 火災가 首位를 차지하여 그 增加率은 해마다 20%씩 늘어나고 있는 趨勢에 있습니다.

더우기 요즈음에 이르러서는 人口의 都市集中 現象, 建物의 高層化, 地下街의 增加, 建物內에서의 可燃性 物質의 使用·生活樣式의 密閉化, 不特定多數人의 出入, 冷暖房設備 및 器具의 大型化, 內燃機關의 普及등으로 不意의 火災事故率은 더욱 深化되고 있기 때문에 防災對策은 크나큰 社會問題로 擡頭되고 있습니다.

이에 對處하여 우리 人間이 疾病에 대하여 治療醫學보다 豫防醫學을 重視하는 것 처럼 火魔로부터 國民의 人命과 財産을 保護하기 위하여는 鎮壓活動보다는 豫防活動에 더욱 拍車를 加하는 것이 最善의 防災對策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民主·福祉·正義社會 建設과 國家의 繁榮과 安定基盤造成을 위해 官民이 渾然一體가 되어 創意力을 發揮하며 勇氣와 슬기를 모아 힘찬 前進를 繼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聖스런 防災의 役軍으로서 自負心과 矜持를 가지고 말은바 業務에 最善을 다 하도록 努力해야 하겠습니다.